

방사성폐액 수거에 대한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RI이용기관에서 위탁폐기의뢰하는 방사성폐액을 인수·저장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저장용량부족으로 인수업무를 잠정중단중에 있다. 기술원에서는 방사성폐액 저장용량확장 및 유기폐액 소각설비를 마련하고 있어 2002년초부터는 방사성폐액 인수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방사성폐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폐액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액 수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기폐액과 무기폐액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에 철저히 분리하여 담을 것
2. 유기폐액과 무기폐액이 혼합되어 균일상으로 된 경우(예 : LSC용액)에는 혼합비율을 명시할 것
3. 폐액용기내에는 폐액이외의 고체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4. 각 용기내에 들어있는 폐액의 종류(제품명)와 수량을 자세히 명시할 것
5. 각 용기내에 들어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및 수량(농도)를 명시할 것

상기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자부 고시 1999-102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방사성폐액 분리수거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문의처 : 042-868-0273 원자력환경기술원 이상우)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동화약품

간암 주사치료제 국내 '신약3호 곧 시판'

간암을 수술하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 주사제로 치료하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동화약품(주) 공동 연구팀(책임자 박경배·朴敬培)은 방사성동위원소 홀뮴-166과 생체에 무해한 천연의 키토산 고분자물질 화합물로 이루어진 간암 치료제를 개발, 국내 신약 3호(국내 방사성 의약품 신약1호) 승인을 받아 곧 시판할 예정이라고 7월 6일 밝혔다.

이 치료제는 초기 간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서 1회 주사로 유효율(암세포 50~100% 괴사 효과를 얻은 비율)이 78%에 이르는 높은 효능을 보였다. 또 일반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약물을 간암조직에 직접 주사로 넣어 암 조직에만 머물게 해주위의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의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통증이나 발열 등의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초기 간암환자에 국한해 임상실험이 이루어 졌지만 점차 말기 암환자 등으로 임상실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자력병원

제7대 원자력병원장 취임

2001년 7월 5일 심윤상 박사(이비인후과)가 제 7대 원자력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심윤상 원장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원자력병원이 국내 최고의 암전문 병원 및 원자력의학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원자력연구소 연수원

방사성동위원소 의학적이용 교육이 8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4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630,000원이다. (문의처 : 042-868-0274 원자력연구소 연수원)

한국가스기술공업(주)

상호등 변경안내

변 경 전		변 경 후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	상 호	한국가스기술공업(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경동빌딩4층	주 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두산 전자빌딩 4층
정 중 길 031-738-1600	대표자 전 화	민 병 군 031-780-7200,7300

변경일자 : 2001. 7. 1